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0일 월요일 음 12월 26일 (3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온도는 5~7°C, 낮 최고 기온은 9~11°C로 쌀쌀하겠다. 중산간 및 산지에는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next 5 days.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Table with air quality and UV index information.

월드뉴스

한국인 실종 사흘째... 수색팀 추가 투입

네팔·한국 구조작업 총력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지난 17일 (이하 현지시간) 실종된 한국인 교사 일행 수색 작업에 현지 경찰 전문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신속대응팀이 도착 후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19일 주네팔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재개된 사고 현장 수색에 구조 경험이 많은 경찰 전문 인력 6~10명이 추가로 동원된다.

고 18일 오후에는 외교부 직원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실종자 가족 6명 등과 함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풍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는 바람에 오후 4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외교부는 19일 2차 신속대응팀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수색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색 헬리콥터도 투입됐지만 현지 지형이 험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현장에는 착륙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인 데우라리 지역(해발 3230m)에서 발생했다. 트레킹에 나섰던 중남 교육청 소속 교사 9명이 하산할 때 눈사태가 덮쳐 교사 4명과 가이드 2명이 휩쓸렸다.

이에 네팔 구조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 총통 지역에 구조 전문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외교부와 주네팔대사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진 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문화란 말을 꺼내들면 '고매한 예술 행위'를 떠올리며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국립국악원 표준국악대사전이 풀어놓은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일컫는다.

문화도시, 장식품 아닌 삶의 풍경으로

향상시킨다는 걸 목적으로 담았다.

제주도는 일찍이 그 문화를 불태웠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조는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즈음이야말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뜻을 새길 때다.

그간 제주특별법을 토대로 두 차례 작성한 향토문화중장기 계획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힘을 줬다면 이전 문화도시라는 눈을 통해 지금, 여기 우리의 나날을 돌아보자는 점이다.

째 베어내려 하는가. 왜 세계자연유산제주 등재된 오름 인근에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서야 하는가를 묻는 시민들이 있다면 문화예술의 섬, 문화도시를 꿈꾸는 제주도에서는 그 물음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계가 전보다 더 늘어난 파이를 나눠 갖는 게 아니다. 지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보거나 듣거나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도시'다. 서귀포시 문화도시가 비전으로 정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역시 수동 형태의 문화 향유가 아니라 '삼촌들이 만들어 온, 만들어갈 마을 문화의 주제성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본다. 문화는 장식품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나와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문화도시가 보기 좋은 문패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풍경이 그러하다는 걸 말해주는 이름이 되길 바란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성 현 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소득 기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개편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의해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0년에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됐고, 주거용 재산 기본 공제 한도액도 6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기혼·미혼·아들·딸 15~30% 범위 내 차등 부과됐던 부양비 부과율이 2020년부터는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됐고, 부양의무자의 재산환산율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인하됐다.



고 기 경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이렇게 완화된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맞춤형 복지 급여별로 적용되는 좀 더 세분화된 기준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2020년에는 좀처럼 기초생활보장으로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때문에 공단은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목격자 등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는 뺑소니·무보험·도난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다. 예컨대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정부보상사업 처리보협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러한 각종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길 바란다.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Insurance,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product images.

Advertisement for Eco Waterproofing (방수) services, showing workers applying waterproofing to a wall.